

故 명효철 원장을 기리며...

글 _ 김재완 · 고등과학원 부원장 겸 원장직무대리

명효철 원장님께서 음력설을 눈 앞에 두고 지난 2월 11일 돌아가셨다. 우리나라 기초과학과 고등과학원의 미래에 대해 강한 의지를 보여주셨지만 이제 그 일은 우리에게 숙제로 남겨주시고 떠나셨다.

평생 등산과 달리기로 건강을 다지시고 병으로 입원해 본 적이라고는 없으신 분이 작년에 처음 입원하신 것은 치명적인 췌장암 때문이었다. 작년 7월말 암을 발견했을 때에는 이미 여러 곳으로 전이가 일어나 돌이키기 어려운 4기였다. 명 선생님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희망이 있다고 생각하셔서 末期라는 표현을 극도로 싫어하셨다. 암 진단을 받은 다음날 당장 원내에서 만날 수 있는 교수들과 저녁을 드시면서 암과의 투쟁을 선포하셨다. 그런 한편 한국여성수리과학회를 지원하기 위한 양해각서, 고등과학원 발전기금 기부, 세 딸에 대한 유언장 작성의 세 가지 중요한 일을 우선 정리하셨다.

명 선생님은 고등과학원의 설립 당시 거의 모든 귀찮은 일을 도맡아 하셨다. 우리나라 기초과학의 발전에 온 열정을 쏟아 부어 고등과학원을 일구어 낸 한편, 여성수리과학회를 통해 여성수학자들이 뜻을 이룰 수 있도록, 또



뛰어난 후학들을 지원할 수 있는 굳건한 토대를 마련하신 것이다.

셋째 딸이 막 백일을 지나 사모님이 돌아가신 후, 세 딸을 훌륭히 키워내신 명 선생님은 마지막으로 남은 유산을 딸들을 위해 유언장으로 남기셨다. 명 선생님은 지난 몇 년간 떨리는 오른손을 대신하여 왼손으로 서명을 하기도 쉽지 않았지만, 긴 유언장을 자필로 정성껏 작성하여 사랑하는 딸들에 대한 마지막 정을 보여주셨다.

마치 어려운 수학문제를 풀어나가듯이 당신의 마지막 시간에 용감하게 맞서시던 명 선생님이 그립다. 열정적으로 사셨던 명 선생님, 그곳에서 사랑스런 제자였던 아내를 만나 평안히 쉬시기를 빈다. [KIAS](#)